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 활동 보도

2013년 03월 04일
(월요일)

강북신문 3면

‘장애인 방청권리 침해소지 내용 정비’

김도연 의원, 강북구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안 제안설명



서울포스트 4면

강북구의회 김도연 의원은 2월 27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방청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였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방청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이 방청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차별적인 내용을 정비하고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가 개최 중인 때에 방청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개정안에는 경위공무원 회의장 내부와 외부 경호업무 조항 신설과 방청과 관련하여 장애인이 방청할 권리를 침해하는 관련 조항(정신이상자) 삭제, 방청과 관련하여 본회의장 또는 상임위원회 회의장 출입증 교부대장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도연 의원은 “의회 방청과 관련하여 장애인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장애 비하표현을 삭제하여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열린의회를 위해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강북구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안 제안설명



강북구의회 김도연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방청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였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방청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이 방청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차별적인 내용을 정비하고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가 개최 중인 때에 방청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개정안에는 경위공무원 회의장 내부와 외부 경호업무 조항 신설과 방청과 관련하여 장애인이 방청할 권리를 침해하는 관련 조항(정신이상자) 삭제, 방청과 관련하여 본회의장 또는 상임위원회 회의장 출입증 교부대장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도연 의원은 “의회 방청과 관련하여 장애인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장애 비하표현을 삭제하여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열린의회를 위해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도연 의원, 강북구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안 제안설명

장애인이 방청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차별적인 내용 정비

강북구의회(의장 박성열) 김도연 의원은 지난 2월 27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였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이 방청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차별적인 내용을 정비하고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가 개최 중인 때에 방청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마련

되었다. 개정안에는 경위공무원 회의장 내부와 외부 경호업무 조항 신설과 방청과 관련하여 장애인이 방청할 권리를 침해하는 관련 조항(정신이상자) 삭제, 방청과 관련하여 본회의장 또는 상임위원회 회의장 출입증 교부대상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도연 의원은 "의회 방청과 관련하여 장애인이 불쾌감을 느



낄 수 있는 장애 비하표현을 삭제하여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열린의회를 위해 개정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최동수 기자 cds0012000@hanmail.net〉

시사프리신문 4면

강북구의회 김도연 의원, '강북구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안' 제안



강북구의회 김도연 의원은 지난 달 27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에 나섰다.

김도연 의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살펴보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이 방청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차별적인 내용을 정비하고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가 개최 중인 때에 방청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들어

있다.

이어 개정안에는 경위공무원 회의장 내부와 외부 경호업무 조항 신설과 방청과 관련해 장애인이 방청할 권리를 침해하는 관련 조항(정신이상자) 삭제, 방청과 관련해 본회의장 또는 상임위원회 회의장 출입증 교부대상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도연 의원은 "의회 방청과 관련해 장애인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장애 비하표현을 삭제하고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열린의회를 위해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유영일 기자